

<우리시대의 유령 Ghosts of Our Times>

보이지 않는 전쟁



프랑스 카퍼, 법 앞에서, 2012

수업개요 : 우리시대의 유령 속에 보이지 않는 전쟁은 작가의 작품 속에서도 찾을 수 있으며,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발견할 수도 있다. 이 수업에서 작품 감상에 있어 중요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작품에 나타나는 권력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들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이지 않는 전쟁'에 처해 있는 우리의 현실을 이해하는 것이다.

대상연령 : 13~15세

키 워 드 : 끝나지 않는 전쟁, 국가와 법, 권력의 상징

학습주제 : 작품에서 권력의 상징적인 표현 찾기

배 경 : 남북 관계는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간의 관계를 말한다.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이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휴전상태이다. 그 이후 남북은 아직 공식적으로 평화 상태를 이루지 못하였다. 엄격히 말해 남과 북은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

은 상태이다. 보이지 않는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남북으로 갈라진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로 핵과 전쟁에 대한 공포감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한국인이란 누구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유령같은 존재이지만 우리 눈앞에 드러나 있는 것은 아니다.

작가는 북한을 여행하면서 사진을 찍을 때마다 현지 가이드에게 허락을 받아야 했다. 이렇게 스스로 '법 앞에서'를 경험하게 되면서 김일성과 김정일 시대에 만들어진 묘지와 건축물에 조각된 장식들을 자세하게 사진으로 담았다. 이러한 장식으로 사용된 특별한 상징들은 그 두 지도자가 추상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건축물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권력의 상징적인 장식을 통해 그들의 힘을 어디에서든 보여주고 있다.

작가는 북한의 모뉴멘탈을 이용하여 내용이나 형식을 전복시키는 작업을 보여준다.

수업 과정

<p>도입</p>	<p>○ 작품 감상과 이해 -프란츠 카퍼의 작품(실제 작품 or 사진)에서 먼저 전체를 감상하고 색과 형태, 재료를 감상한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생각의 정원 Garden of Think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기는 어디일까요? - 프란츠 카퍼의 문 안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 관찰했을 때, 문에서 어떤 문양이 발견되나요? - 프란츠 카퍼의 작품을 새롭게 만든다면 재료는 무엇이 좋을까요? </div>	<p>Tip 문은 실물크기로 제작되었으나 나무판 위에 프린트를 붙이거나 페인트를 칠하여 가볍게 표현했다. 멀리서 전체를 감상하고 가까이서 감상하여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p>
<p>전개</p>	<p>○ 작품과 이야기 - 프란츠 카프카의 '법 앞에서' 이야기와 작가의 작품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 해본다.</p> <p>○ 다른 작품과 연결 짓기 - '왕좌에 앉은 나폴레옹 1세'에서 권력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장식들을 찾아보고, 우리 주변에서도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p> <p>○ 활동 : 나의 권력을 상징하는 문양 만들기</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생각의 정원 Garden of Thinking</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란츠 카퍼는 문을 통해 무엇을 보여주고 있나요? - 프란츠 카프카의 등장하는 주인공에게 '법'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 우리에게 문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신에게만 열려 있지 않는 무언가가 있나요? </div>	<p>Tip 먼저 작품의 제목을 제시하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토론을 하고 난 뒤에 작가와 작품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p>
<p>정리</p>	<p>○ '더 큰 생각 잇기 <i>Big Garden of Thinking</i>' 게임하기 - 'Bic Garden of Thinking' 게임을 하면서 작품의 제목으로 폭넓게 생각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공유한다.</p>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이해의 정원 *Garden of Understanding* 은 교사들이 전시장과 학교에서 감상을 위해 제시할 수 있는 참고자료 공간입니다. 아이들에게 단순한 지식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의 정원', '지혜의 정원'으로 만들어 주세요.

▲ 참고 자료

법 앞에서

법 앞에 문지기가 하나 서 있다. 시골에서 한 남자가 찾아와 문지기에게 법 안으로 들여보내 달라고 부탁한다. 그러나 문지기는 지금은 그에게 입장을 허락할 수 없다고 말한다. 남자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나중에는 들어갈 수 있느냐고 묻는다. "그럴 수 있겠지요." 문지기가 말한다. "그러나 지금은 안 돼요." 법에 이르는 문이 여느 때처럼 열려 있는데 다가 문지기가 옆으로 비켜섰기 때문에 그 남자는 그 틈에 문 안을 들여다보려고 허리를 구부린다. 문지기가 그것을 보더니 웃으면서 말한다. "그렇게 마음이 끌리면 나를 제치고 한 번 들어가 보시오. 하지만 내가 힘이 세다는 걸 명심해둬요. 나는 가장 말단 문지기에 불과하지만 방에서 방으로 갈수록 힘이 센 문지기들이 서 있어요. 세 번째 문지기의 얼굴을 나는 쳐다보지도 못했어요." 시골에서 온 그 남자는 그러한 어려움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법은 누구에게나 그리고 언제나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그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 때 모피 외투를 입은 그 문지기를, 그 사람의 커다란 뺨죽코와 길고 얇은 타타르풍 턱수염을 자세히 살펴본 그 남자는 입장 허가를 얻어낼 때까지 차라리 기다리기로 결심한다. 문지기는 그에게 걸상을 하나 건네주고 한 쪽 문 옆에 앉으라고 한다. 그는 몇 날 몇 해고 거기에 앉아 있다. 그는 안으로 들어가려는 여러 번의 시도를 한다. 그는 끈질긴 부탁으로 문지기를 피곤하게 만든다. 문지기는 가끔 가다 몇 마디씩 던져 그 남자를 신문(訊問)해 본다. 문지기는 그에게 고향과 그 밖에 여러 가지 것에 대해서 물어본다. 그러나 그것은 늙으신 분들이 으레 던지는 하나마나한 질문들과 다름없다. 언제나 끝에 가서는 문지기는 아직은 그를 들여보낼 수 없다고 말한다. 여행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 가지고 온 그 남자는 모든 것을 탕진한다. 문지기를 매수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아주 값진 것이라고 해도. 문지기는 그 모든 것을 받으면서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받는 것은 다만 당신이 무언가 빠뜨렸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지요." 그 여러 해 동안 그 남자는 문지기를 거의 끊임없이 관찰해 왔다. 그 남자는 다른 문지기들의 존재는 망각했다. 그리고 이 첫 문지기만이 그가 법으로 들어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방해물인 것처럼 보였다. 그는 그 불행한 우연을 저주하고 화를 냈다. 첫 몇 년 동안은 막무가내로 그리고 큰소리로, 나중에 늙어서는 그저 조그만 소리로

투덜댔다. 그는 이제 노망기가 들었다. 문지기를 오랫동안 살피는 과정에서 그 남자는 문지기의 외투 깃에 살고 있는 벼룩까지도 알게 되어 벼룩에게도 그를 도와 문지기의 마음을 바꾸도록 해 달라고 부탁한다. 마침내 그는 시력까지 약해져, 정말로 그의 주변이 어두워진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의 눈이 착각을 일으키는 것인지 알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는 이제 어둠 속에서 법의 문으로부터 뻗쳐 나오는 뚜렷한 빛살을 알아본다. 이제 그는 앞으로 얼마 살지 못한다. 죽음을 앞두고 그 남자의 머릿속에서는 지난 모든 경험이 그가 지금까지 그 문지기에게 아직 던지지 않은 한 가지 질문으로 집약된다. 그는 굳어가고 있는 자기 몸뚱어리를 더 이상 일으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문지기에게 눈짓을 한다. 문지기는 그를 향해 깊이 허리를 굽혀야 한다. 왜냐하면 키의 차이가 그 남자한테 아주 불리한 쪽으로 변했기 때문이다. "아직도 뭘 더 알고 싶어요?" 문지기가 묻는다. "당신은 정말 물릴 줄 모르는군요." "모두들 법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그 남자가 말한다. "어떻게 해서 그 오랜 세월 동안 나 외에 아무도 입장을 요구하지 않은 거지요?" 문지기는 그 남자의 종말이 다가왔음을 알았다. 그리하여 문지기는 그 남자의 꺼져가는 청력에 닿을 수 있도록 큰소리로 이렇게 말한다. "여기서는 어느 누구도 입장을 허가 받지 못했지요. 왜냐하면 이 문은 오로지 당신만을 위해서 만들어졌으니까요. 나는 이제 문을 닫아야겠군요."

프란츠 카프카 외, 『환상동화』, 김재혁 옮김, 하늘연못, 2007년, 9-13쪽

▲ 연관 작품

연관성 : 북한 소재	연관성 : 권력의 상징
<p>작품제목 : Blow up</p> <p>작가명 : 백승우</p> <p>백승우는 평양을 방문했을 때, 프란츠 카퍼처럼 원하는 장소의 사진을 찍을 수 없었다. 그도 '법 앞에서'를 경험하게 되었고 필름을 방치하였다가 그 필름을 다시 이미지 '확대'라는 행위를 통해 평양이라는 도시의 비현실적인 현실을 더 극한 현실로 드러내 보여주는 결정적인 역할로 이용했다.</p>	<p>작품제목 : 왕좌에 앉은 나폴레옹 1세, 1806</p> <p>작가명 : 앙그르 Jean-Auguste-Dominique Ingres</p> <p>재료 : oil on canvas 크기 : 295x192cm</p> <p>나폴레옹의 왕좌와 왕관, 예복, 홀은 모두 권력에 대한 전통적인 상징이었다. 앙그르는 또한 카펫에 로마의 독수리를 첨가하여 나폴레옹을 로마의 황제처럼 위대하게 표현했다. 이 초상화는 왕위에 오른 황제를 찬미하고 황제가 얼마나 강력한 권력을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기 위해 제작되었다. 나폴레옹을 영향력 있는 모습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앙그르는 인물의 성격보다 지위를 나타내는 장신구의 표현에 집중했다.</p>

더 큰 생각 잇기 *Big Garden of Thinking*



초등학교 시절에 다른 아이들은 나에게 이야기를 지어 달라고 부탁하기 일쑤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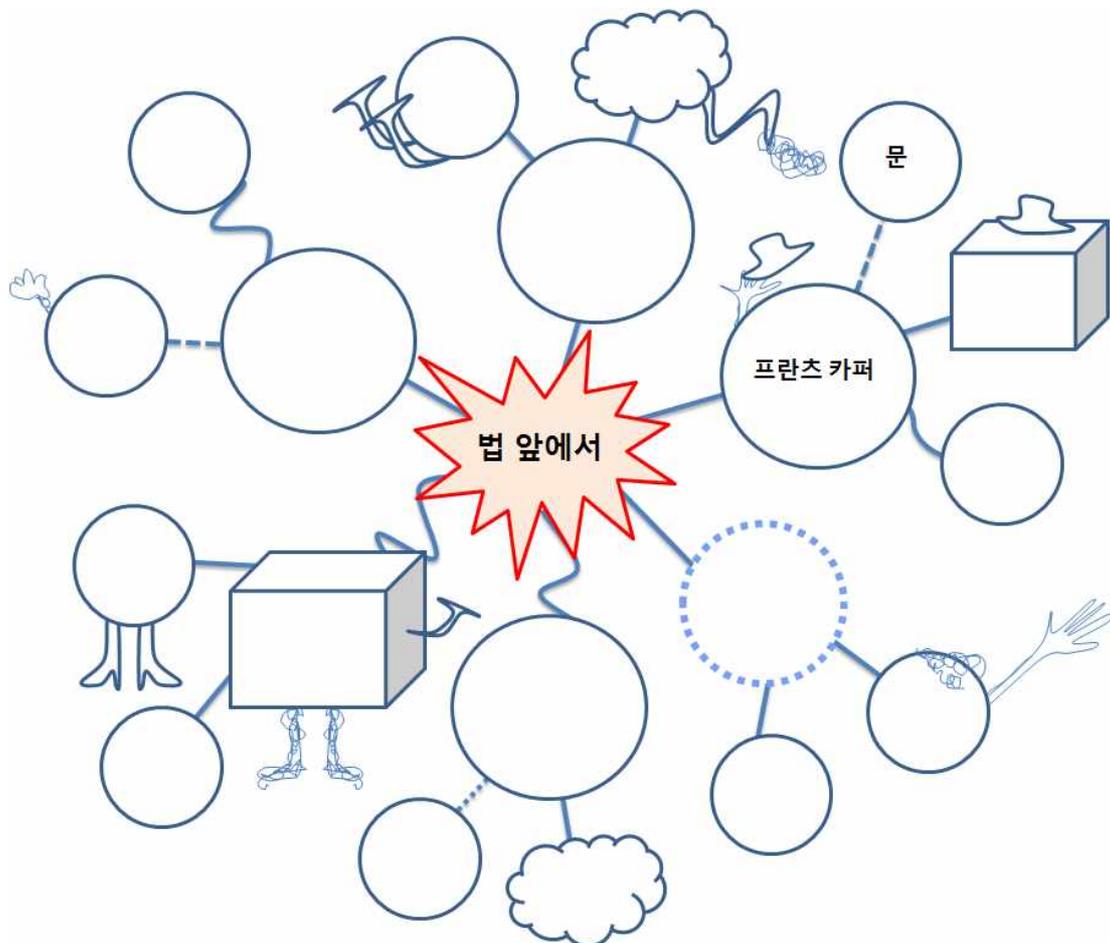
그러면 나는 대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는 아무 생각 없이 문을 열었다가 너무 놀라서 입을 아물지 못했어.....>

그러다가 그것들은 하나의 게임이 되었다.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뜻밖의 해법을 찾아내게 하는 게임 말이다.

베르나르 베르베르 ‘나무’ 중에서...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상상을 자극하는 문제를 제기하고 사람들에게 뜻밖의 해법을 찾아내게 하는 게임으로써 단편 소설을 만들고 자신의 창의적인 이야기를 펼친다. 공식은 있으나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다.